

# 物理法則과 男女關係

現代는 科學技術의 時代인 동시에 宗教心이 喪失된 時代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物質的인 繁榮과 精神的인 퇴폐의 二律背反에 고뇌하는 現代社會에 대하여 F.카프라는“現代物理學과 東洋思想”에서 相對性原理, 素粒子, 쿼크 등 現代物理學의 理論을 힌두교의 梵我一如, 佛敎의 色卽是空, 周易의 陰陽循環論에 대비시켜 거기서 萬物의 統一性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다. 한편, G.주커프의“춤추는 物理”에서는 西洋物理學者들이 경험한 實在認識方法論이 마침내 東洋의 實在(物理世界)觀에 同調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筆者는 여기서 物心一之論的인 科學哲學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核物理를 전공하고 보니 物質→分子→原子核→核子→쿼크→? 등으로 끝이 없고, 결국 物理世界가 哲學世界로 歸結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보고 있다. 그리고 여러 物理學則이 우리 人生에도 많이 적용된다는 것을 느꼈다. 거창하고 고상하게 物理學則과 人生 또는 人間關係를 따질 것 없이 쉽게 物理法則과 男女關係를 몇가지 소개한다.

## 運動方程式

質量(mass) m인 物體에 작용하여 a의 加速度를 생기게 하는 것,

$$F=ma \dots\dots\dots ①$$

를 힘(force) F라 하고, 이것을 運動의 第2法則이라 한다. ①식을

$$a=F/m \dots\dots\dots ②$$

로 고쳐쓰면 加速度라는 것은 物體에 작용하는 힘이 크면 클수록, 質量이 작으면 작을수



徐 斗 煥  
〈韓國에너지研·原子爐管理室長〉

록 커진다. 이 a를 신희살림살이하고 있는 夫婦에 적용해 보면 女子(female) F가 바가지를 많이 끊으면 끊을수록, 男子(male) m이 큰소리 못하고 기를 죽이면 죽일수록 살림이 좋아진다. 아마 뉴턴씨도 20世紀에는 女性上位時代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여 F를 大文字로, m을 小文字로, F를 윗쪽에, m을 아래쪽에 표기한 것 같다.

萬有人力

質量 M, m의 質量이 距離 r를 두고 있을 때,

$$F = (Mm)/r^2 \dots\dots\dots ③$$

크기의 引力 F가 작용한다. 이것을 萬有人力의 法則이라 한다. 物質 M과 m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은 M과 m을 곱한 量에 比例하고 距離의 제곱에 反比例하고 있다. ③식을

$$F = (\text{♂♀})/r^2 \dots\dots\dots ④$$

로 놓으면, ④식에서 性別이 다르니 서로 끌어당길 것이고, 男女사이에 작용하는 사랑의 힘은 男女가 갖고 있는 사랑의 量에 比例하여 커질 것이다. 그러나 男女사이의 距離제곱에 反比例하여 사랑의 힘이 變한다. 男子는 바다건너 멀리 外國에 오래동안 留學 또는 出張중이고, 女子는 우리나라에 혼자 떨어져 있으면 距離제곱의 法則에 따라 서로의 사랑의 量이 크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힘이 弱化되어 결국에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반면에 술집에서 처음 만난 女子이고 비록 사랑의 量은 적다고 할지라도 둘이 딱 달라붙고 있으면 距離제곱의 法則이 작동하여 서로 좋아질 수 있다. 이것이 自然의 法則이요 神

의 攝理라 어떻게 하겠는가.

光電效果

γ線과 物質과의 相互作用중에서 γ線이 原子와 충돌하여 그 軌道電子에 모든 에너지를 주어 電子를 튀어나오게 하고 自身은 消滅하는 現象이다. 즉,

$$E_p = E_r - I_b \dots\dots\dots ⑤$$

이다. 여기서  $E_p$ 는 튀어나오는 電子의 運動에너지,  $E_r$ 는 入射γ線의 에너지,  $I_b$ 는 구속 전자의 綜合에너지이다. 無斷家出한 시골 처녀가 惡德仲介人에게 속아 이상한 곳에 팔려가서 잡혀있다고 하자. 처녀가 그 구속에서 脫出하려면, 또는 義理의 사나이가 그 곳에서 처녀를 빼낼려면 ⑤식에 의하여 人質로 잡힌 돈 10만원 ( $I_b$ )보다 많은 돈 15만원 ( $E_r$ )을 사나이가 支拂해야만 처녀는 나머지 돈 5만원 ( $E_p$ )을 가지고 그 소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글에서 男性의 名譽를 훼손시키고 女性을 모독한 內容이 있더라도 애교로 봐주시고 관용있기 바란다.

